더 쉽고 흥미로운 모차르트 오페라 만난다

전북문화관광재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선정작 '백작의 은밀한 초대' 10일 초연

모차르트의 대표 오페라를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한 창작 오페라가 전주에서 첫선을 보인다. 내레이션과 연극, 오케스트라를 결합한 새로운 형식으로 클래식을 어렵게 느끼는 관객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2026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소리문화창작소 신(대표 박신)이 오는 7월 10일 오후 7시 30분 전주한벽문화관 공연장에서 창작 오페라 '백작의 은밀한 초대'를 초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초연 창작 분야 지원을 받아 제작된 공연으로, 지역 공연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작의 은밀한 초대'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대표 오페라인 '피가로의 결혼', '돈 지오반니', '여자는 다 그래'를 하나의 서사로 엮어 새롭게 구성한 작품이다. 원작의 아름다운 음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 전개를 더해 클래식을 처음 접하는 관객도 쉽게 몰입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공연은 권력과 욕망에 사로잡힌 백작이 하인 수잔나를 유혹하려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피가로와 수잔나, 백작부인이 힘을 모아 백작의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거짓과 오해, 사랑과 용서가 교차하며, 마지막에는 진심 어린 참회와 화해를 통해 인간에 대한 희망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한다.

'백작의 은밀한 초대' 포스터

이번 공연의 가장 큰 특징은 내레이터와 연극적 연출, 오페라, 라이브 오케스트라를 결합한 융합형 무대다. 복잡한 오페라의 줄거리를 이야기 중심으로 재구성해 관객의 이해를 돕고, 생생한 연기와 오케스트라 연주를 더해 몰입감을 높였다.

무대에는 연출을 맡은 김정윤과 음악감독 정혜란을 비롯해 박신, 박동일, 오요환, 허정회, 김아름, 이아람, 송영욱 등 지역 성악가들이 출연한다. 유수영 지휘자가 이끄는 사단법인 클나무 오케스트라도 함께해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경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공연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오페라를 누구나 쉽고 친숙하게 즐길 수 있도록 새롭게 해석한 작품"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단체의 우수한 창작 콘텐츠가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연은 전석 3만 원이며, 8세 이상부터 관람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스테이 삼례 런케이션-나를 찾는 여행'

완주문화관광재단, 18 · 25일 프로그램 운영… 참가자 모집

완주문화관광재단(이사장 유희태)은 오는 7월 18일과 25일 '2026 스테이 삼례 런케이션-나를 찾는 여행' 당일형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재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 삼례 런케이션은 전북특별자치도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관광콘텐츠로, 학습(Learn)과 휴식(Vacation)을 결합한 런케이션(Learn+Vacation) 개념을 적용해 여행과 자기이해, 지역문화 체험을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삼례문화예술촌 예술인마을 일원에서 올해 총 10회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1차로 7월부터 9월까지 총 8회의 당일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TCI(기질 · 성격) 검사를 관광 프로그램에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질과 성격을 이해하고 전문 강사의 해설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전문 이야기꾼과 함께하는 삼례문화예술촌 투어 △로컬푸드를 활용한 힐링런치 △CPA 컬러기질 프로그램 △나만의 우드 사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삼례의 문화자원과 지역의 매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심리 기반 자기이해와 문화예술 체험, 지역관광을 융합한 관광콘텐츠로, 단순한 방문형 관광을 넘어 체험과 치유를 결합한 차별화된 관광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누리카드 활성화 '알리미 이벤트'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 이하 재단)이 문화누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2026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프로모션 이벤트 알리미(1차)'를 오는 1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문화누리카드 도내 사용처를 널리 알리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통합문화이용권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공익사업이다.

전북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북문화누리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우 또는 유튜브 채널 구독 후 네이버 폼에 인증 사진을 제출하고 설문을 완료하면 응모가 가능하다.

재단은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며 당첨 결과는 오는 16일 재단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와 국내 여행, 체육활동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1인당 15만 원이 지원되며 청소년기와 생애전환기 대상자에게는 1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발급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사용은 12월 31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가능하다. /김재훈 기자

'AI 판소리 창작 프로젝트' 접수 연장

전주세계소리축제, 13일 오후 3시까지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전통 판소리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참여형 공모전 'AI 판소리 창작 프로젝트 - AI 판소리 한마당 : 新소리, 新바람'의 작품 접수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3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소리축제는 전국 각지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판소리 창작 작품 접수가 이어지는 등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다양한 작품을 발굴하고 더 많은 국민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접수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AI 판소리 창작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와 상상을 바탕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판소리 기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참여형 공모전이다.

전통 판소리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창작 경험을 제안하고, 세대와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작품 영상을 하나의 ZIP 파일로 압축해 이메일(pr3@sorifestival.com)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할 수 있다.

출품작은 2분 이상 3분 이하의 AVI 또는 MP4 형식(Full HD 1080p 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음악과 영상 모두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하며 AI 활용 비율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영상 시작 또는 종료 부분에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된 콘텐츠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김재훈 기자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파도 담은 특별한 사진전 개최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이 여름철 방문객들에게 시원한 감성을 전하는 특별한 사진전을 마련했다.

완주군은 7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삼례문화예술촌 제1전시관에서 여름 특별기획 '웨이브(Wave): 집으로 가는 길' 사진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사진 기반 프로젝트팀 '샘앤지노(SAM & JINO)'가 참여해 바다와 파도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샘앤지노는 아티스트 송샘과 강진호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으로 순수예술과 상업예술을 넘나드는 감각적인 작업을 이어가며 아트 포스터 컬렉터들 사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전시에는 작가가 성장한 섬과 육지를 오가며 배 위에서 직접 포착한 파도의 풍경을 담은 사진 23점과 영상 1점 등 총 24점의 작품이 소개된다.

이번 기획전은 일렁이는 파도에 담긴 기억과 감성을 통해 관람객들이 일상 속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시원한 바다의 풍경 속에서 새로운 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편, 삼례문화예술촌 제3전시관에서는 2026년 명품관광지 지역작가 공모 네 번째 전시로 여은희 작가의 '톡톡, 수세미 자서전'이 오는 8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직접 키운 수세미를 활용한 회화 및 설치 미술 19점을 선보이며, 식물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잔잔하게 표현한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